

문 못 여는 광주 공공체육시설 3곳 '골칫거리'

빛그린·무등국민·평동체육관 준공 수 개월 지나도록 방치 결로 현상·탈의실 비좁아 리모델링 불가피...시, 감사 착수

거액을 들여 조성한 광주 공공 체육시설이 준공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체육공간 조성을 바랐던 시민들은 크고 작은 문제로 체육시설이 운용되지 않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광산구 빛그린산단 인근에 '빛그린 체육관', 같은 해 11월 북구 신안동에 '무등 국민체육관'과 광산구 평동에 '평동 체육관'을 완공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빛그린 산단 근로자 복지를 위해 100억원을 들여 건립한 빛그린 체육관은 준공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개관조차 하지 못했다.

위탁 운영하게 된 광주 도시공사는 사전 수요 조사에서 하루 이용객이 15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수영장 수심은 1m 45cm로 깊게 설계돼 사용 전에 수위 조절 장치를 설치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각각 76억원, 100억원이 투입된 무등 국민체육

■ 빛그린 체육관
사전 수요 조사에서 하루 이용객 15명 그쳐 수심 1m45cm로 깊게 설계 돼 수위조절 필요

■ 무등 국민체육관·평동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문 못 열고 수영장만 개장

관, 평동 체육관도 수영장만 개장했을 뿐 다목적 체육관은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평동 체육관에서는 결로 현상이 발생해 보수가 시급하고, 수영장 탈의실은 비좁아 확장 등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들 시설은 시민들이 살터 인근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건립한 스포츠 인프라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설을 둘러본 후 건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강 시장은 "민선 7기부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 건



광주 북구 신안동 시립광주무등수영장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탈의실이 턱없이 부족하게 설계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감사를 요구해 바로잡고, 시설물도 꼼

꼼히 살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KY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8명 SKY 출신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대부분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로학원은 2020~2024학년도 5년간 'SKY' 로스쿨 합격자 1998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졸업한 이들의 비율이 86.4%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학교별로 따져보면 서울대 출신이 44.4%(888명)였고, 고려대가 21.3%(426명), 연세대가 20.6%(412명)였다.

최근 5년간 성균관대 출신은 62명(3.1%), 한국과학기술원은 41명(2.1%), 경찰대는 36명(1.8%)이 서울·연세·고려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다음은 한양대 26명(1.3%), 해외대 23명(1.2%), 이화여대 19명(1.0%), 서강대 15명(0.8%), 포항공대 13명(0.7%) 순이었다.

비수도권 일반대학에서는 전남대·충남대·전북대·충북대·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각각 1명씩 합격했다.

/연합뉴스

유기 동물보호소 '나주천사의집' 문 닫는다

허가 받고 지은 축사 진입로 매입 못해 건축 허가 불발 사설보호소 신고제 등록 요원...2026년부터 추가 벌금

개농장에 갇히거나 안락사 위기에 놓인 유기 동물을 보살피던 동물보호소 '나주천사의집'이 문을 닫게 됐다.

나주천사의집 관계자는 13일 "나주천사의집에 대한 건축 허가 및 진입로 포장공사 등 양성과 계획이 모두 중단돼 폐쇄의 길을 걷게 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2013년 나주시 부덕동에 세워진 동물보호소로, 현재 개 80마리, 고양이 등을 포함해 총 130여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 중 3분의 1은 나주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동물이며, 3분의 2는 불법 개농장에서 구출됐다.

나주천사의집은 보호 유기동물이 늘어나자 견사

와 울타리를 증축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됐다.

나주시는 지난 2021년 나주천사의집이 건축법을 위반해 견사·울타리를 증축했다며 철거명령을 내렸다. 나주천사의집은 이후 2년간 견사 등 40%를 철거하고 사설보호소로서 정식 허가를 받던 중 새 부지를 구했다.

하지만 축사 건축 허가를 위해 필요한 진입로를 매입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다. 20m 길이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주천사의집 관계자는 "주변 시세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 진입로 땅을 구입하려 했으나, 땅 주인은

그보다 2배 높은 가격을 요구해 매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 지원 없이, 시민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보호소가 무허가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더불어 값비싼 땅값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사설보호소 등록도 할 수 없어 2026년부터는 미등록에 따른 추가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나주천사의 집 측 설명이다. 나주천사의집은 이달부터 후원반은 부지매입비를 반환하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동물 구조 역시 중단했다.

나주천사의집 관계자는 "5년 이내 차근차근 보호소를 정리할 계획"이라며 "나주천사의집 이름을 버리고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300평 규모의 땅을 찾아 새 보호소를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여천NCC 폭발사고 공장 대표 등 재판 넘겨져

9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중대재해법은 무혐의

검찰이 폭발 사고로 사상자 8명을 낸 여천 NCC의 공장 대표 등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여천NCC 폭발 사고는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꼽혔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13일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9일 여수시 화지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상자 8명 가운데 7명은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며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사고는 2022년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후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계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버스사고 사망자 늘어

80대 치료 중 숨져 총 3명

고속도로 위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났다.

13일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에 따르면 지난 달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유리창을 뚫고 날아온 트레일러 바퀴를 맞은 A(83)씨가 12일 오전 6시 20분께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버스 앞자리에 앉아 바퀴를 피하지 못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4시 10분께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25t 화물 트레일러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편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회원 37명이 탑승해 있던 관광버스 유리창을 뚫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총회를 마치고

광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 사고로 광주지회장 B(60)씨와 운전기사 C(61)씨가 숨졌으며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공유차량 공영주차장 무료

광주 북구, 문정초교 앞 등 4곳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인 공유차량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쏘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은 (주)쏘카와 업무협

약을 맺고 광주시 북구 4개 공영주차장에 공유차량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무료로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우산생활체육관(우산동), 문정초교 앞(문흥동), 용봉제1(용봉동), 천안산단완충녹지다.

쏘카 운전자들은 사전 등록된 번호판을 통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3월호

2024년 2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별 기획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멋과 함께
남도여행
담양 여행

죽녹원~관방재림~메타세쿼이아 산과 물, 하늘 어우러지는 담양호 '용마루 길'
담주 다미담 예술구 | 메타 프로방스
고재구 전통쌀엿+한복차 환과 | 송영갤러리카페

**대숲체험
예술충전
용마루길**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①
'작은 네모' 속의 설레임
담양유표박물관

호남의 누정②-광주 최가정
충장공 김덕령의
의와 충이 깃든 누정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손레기 '변두리의 언저리'③
조선대, 문명란 시인과 이철규 열사

예향 초대석

'시간의 층' 읽는 도시문화학자
김시덕
"낮설게 보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⑥
문화 기부로 차려진
예술 성찬
더 브로드와 LACMA

해외문화기행③-미국 샌디에이고
군함 박물관의 위용과
여유로운 해변의 낭만

예향이 만난 이 사람
라틴어 인생 문장의 작가 한동일
화가로 변신한 배우 박신양

평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④
대구에서 LA 들고 돌아
다시 한국으로 공명한 화가, 곽훈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돈 되는 한국 시장 직접 노렸다
미드 '성난 사람들' 뜬 비결